

## 2. 노인과 고목

옛날, 어느 마을에 엄청난 추위가 들이닥쳤다. 추위를 견디다 못한 마을 청년들이 마을 청년들이 마을 가운데에 있는 고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려고 하였다. 그러자 한 노인이 막아서며 말하였다.

“고목은 오랫동안 우리 마을을 지켜 왔으니 함부로 베는 게 아닐세. 우리 행랑채를 뜯어 땔감으로 쓰고 고목은 그대로 놔 두게나.”

노인의 말을 듣고, 마을 청년들은 행랑채를 뜯어 땔감으로 썼다.

이듬해 봄이 되어 농사지를 일손이 필요하게 되었다.

“작년 겨울에 행랑채를 뜯는 바람에 우리는 일할 사람을 들일 곳이 없으니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단 말이요?”

아내의 말에 노인이 일할 채비를 하고 논으로 나가려고 할 때였다. 낯선 청년 한 사람이 뚜벅뚜벅 마당으로 들어왔다.

“영감님, 저를 먹여만 주십시오. 그럼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엔 자네를 재워 줄 방이 없다네.”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먹여만 주시면 됩니다.”

노인이 허락하자, 청년은 곧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청년은 논을 갈고 밭을 매며 일꾼 세 사람 몫을 거뜬히 해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청년이 밤만 되면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이튿날 이른 아침에 다시 오곤 하는 것이었다.

가을이 되자, 노인은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거두어들였다. 노인이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풍작이었다. 노인은 열심히 일하여 준 청년이 고마웠다.

“자네 덕분에 이렇게 곡식을 많이 거두었으니 참 고맙네. 곡식을 팔아 자네 몫을 나눠 줄 테니 좀 기다리게나.”

“저는 고목의 신령입니다. 지난 겨울, 영감님께서 저를 베지 못하게 막아 주셔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이 곳에 왔던 것입니다.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말을 마친 청년은 고목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다.

### \* 주제 찾는 방법 및 정답 해설 \*

#### 1-1. 주제 찾는 방법

- 1) 중심 내용에 밑줄을 치면 읽는다.
- 2) 밑줄을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한다.

#### 1-2. 요약

어느 추운 겨울 날 마을 사람들이 땔감으로 마을의 고목을 베려하자 한 노인이 고목은 마을을 오랫동안 지켜왔으니 보호를 하고 자신의 행랑채를 뜯어 땔감으로 쓰라고 했다. 이듬해 행랑채를 헐어 일꾼도 들일 수 없는 노인의 집에 낯선 청년이 찾아와 열심히 일을 해줘 그 해 가을 노인은 엄청난 수확을 거두어들였다. 노인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니 청년은 자신이 바로 고목의 신령이라며 작년 겨울에 지켜준 것에 대한 보답이라며 고목나무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 1-3. 요약한 내용을 다시 읽으며 중요 내용에 밑줄을 긋는다.

(※ 이야기는 항상 사건을 통해 주제를 전달한다. 사건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주제를 찾을 때 사건 자체에는 연연해 할 필요가 전혀 없다. 땔감 사건, 행랑채를 헐 사건, 청년이 일을 거들어준 사건 등은 주제를 전달하는 그릇에 불과하다.)

: 노인의 고목나무 구제 → 구제 받은 고목나무의 은혜 갚기 ⇒ 은혜를 입으면 갚아야 한다.

#### 4) 밑줄 친 중심 내용에서 필자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찾는다.

★ 주제 : 은혜를 입으면 갚을 줄 알아야 한다.